

## 요약

본 논문은 우리 부 국정 과제인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 및 지원 강화”, 및 “문화교류, 협력 확대”와 관련하여, 선진사례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통해, 현실적이며 실효성 있는 정책 및 제도의 개발에 참고하기 위한 자료로서 작성되었다. “문화국가”를 표방하는 독일은 유럽 내에서도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서 전통적으로 문화예술분야는 공공의 자산이자 공적 자원에 의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하며, “지원이 아닌 미래에 대한 지속적 투자”라는 개념으로 오랫동안 다양한 정책개발과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독일은 분단국가였다는 점에서 우리와 공통점이 있지만, 전통적으로 뿌리 깊은 연방제는 중앙집권제로 서울에 모든 문화 기반시설이 편중되어 있는 우리의 상황과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독일의 사례는 통일을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서울에 모든 권력과 문화의 집중이 문제시 되고 있는 우리의 불균형한 지역발전문제의 해결 차원에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1 장에서는 독일 문화정책의 특징과 현안을 다루었다. 먼저 독일의 문화정책의 근본적인 이해를 위해, 제 2 차세계대전 이후의 발전사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동과 서로 분단되었던 시기의 서로 문화정책과 통일 이후의 문화정책을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써, 통일이 문화정책에 끼친 영향에 대해 개관할 수 있었다. 또한 연방제가 뿌리깊은 전통으로 자리잡은 배경을 확인함으로써, 뒤에서 다루게 되는 각 행정 주체의 정책 개발 방향이나 권한의 범위를 이해하는 기반으로 삼았다.

그 다음으로는 문화정책의 특징을 다루었는데, 특히 연방제라는 행정체계 내에서 문화 행정의 각 주체와 그 기능을 정리해 보았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라는 세 단계의 행정 주체가 각각 어느 정도의 권한으로 문화정책을 시행하는지를 확인하고, 이 외에도 최근 중요한 문화 주체로 떠오르고 있는 민간 주체의 역할, 그리고 다양한 문화주체 간의 협업에 대한 내용을 살펴 보았다.

한편 국내문화정책 외에도 현대 사회에서 점점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대외문화정책도 본 연구의 중요한 대상으로 다루었다. 독일은 과거와는 달리 최근 몇 년 간 이민자의 수가 최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상호문화주의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커진 상황이다. 이는 역시 외국에서 유입되는 인구, 다문화 가정이 점차 증가하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중요하게 참고할만한 사안이다.

2 장에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참고가 될만한 문화예술 분야의 복지정책과 지원사업을 다양한 예를 통해 정리했다. 우선, 독일에서 이미 30 여 년 전부터 시행되어 온 예술가사회보험제도는 우리부 국정과제인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 및 지원 강화”와 관련하여 참고할만 한 좋은 사례로, 제도의 설립배경과 운영방식, 정착과정과 현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 다음으로는 연방수도이자 일종의 예술특화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된 베를린 시의 자체 문화사업들을 살펴보았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베를린이 통독 이후 예술의 중심지로 떠오른 데는 크게 두가지 요인이 작용했다. 첫번째는 구동독 지역에 위치하여 기반 사업과 시설이 없어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점이다. 집세와

물가가 다른 유럽의 수도, 즉 런던이나 파리에 비해서는 물론이고 독일 내의 다른 도시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았던 통독 직후부터 자연스럽게 독일과 유럽의 예술인들이 모여들게 된 것이다. 두번째는 이런 자연스러운 현상을 연방과 시 차원에서 십분 활용하여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뒷받침했다는 점이다. 연방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문화 분야에서의 권한을 확대하여 베를린시의 문화수도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각종 문화예술 혜택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베를린 시에서는 “poor but sexy“라는 구호로 베를린의 매력을 어필하여, 전세계의 예술가와 혁신가들을 모으는데 성공했다.

이러한 점은 베를린시에서 운영하는 여러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본 연구에서는 베를린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기금의 다양한 종류를 간단하게 소개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현재 운영되는 다양한 문화예술 관련 행사 중 가장 규모가 크며 국제적인 명성이 높은 프로그램들 중 베를린 아트워크와 아트 베를린, 영화분야에서는 베를린 국제영화제의 간단한 역사와 운영방식 등을 다루었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독일의 문화정책은 문화국가로서의 확고한 정체성과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세심한 역할분담을 바탕으로 개발되어 왔으며, 여기에 기업과 시민단체까지 각각의 역할을 더해, 그물망처럼 촘촘한 문화지원체계를 구축,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